

## 시각의 책

### 석가

— 불연 이기영 전집 제8권

부처님의 일대기를 다룬 책이 한권은 아니다. 모두 다 나름대로의 가치는 있는 책들이다. 하지만 그만큼 한계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책 또한 그러한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

하지만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은, 부처님의 생애에 반영된 신화적인 요소들과 후대에 가필 운필된 요소들을 뺄 수 있는 대로 배제하고, 역사적 인물로서의 석존의 삶과 가르침을 보여 주는 데 있다 하겠다.

이정민 지음  
46신 314쪽  
값 11,000원  
한글출판사

### 지장 성지를 찾아서

지장 보살을 찾아 나선 선진 스님의 발걸음이 무겁고도 크다. "모든 중생이 다 부처를 이룰 때까지는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는 지장 보살의 본원 만음이 스님은 관음 신앙을 '보'에, 지장 신앙을 '해'에 비유한다. 그래서, 안으로의 불교가 시대의 해가 되기 위해서는 지장 신앙이 근본이 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임종 복지 시찰이나 남궁림의 확증 등 실천불교의 바탕에 지장보살의 인이 자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지장 도량을 소개하는 맛깔스런 글도 책임을 즐거움을 두배로 늘려준다.

선진 지음  
46신 306쪽  
값 7,000원  
우리출판사

### 나를 다시 하는 동양학

지은이의 문제 제기는 동양학의 범주를 동양학에 한정하는 것을 관건으로 보는 데서 시작한다. 이를테면, 유학이나 도가 그리고 불가의 사상이 동양학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저자는,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뿌리로서의 동양학을 만나라고 주장한다.

지은이의 배움 자세를 함축하고 있는 한 구절만 보자. "개성을 분석함으로써 자신을 바꾸고, 바뀐 자신의 입장에서 다시 대상을 분석함으로써, 마침내 대상과 내가 다같이 없는 곳을 찾아가는 삶의 방법론" 이 책의 급수다.

박민 지음  
46신 320쪽  
값 10,000원  
바리

### 譯註 首楞嚴經 (수능엄경)

웅고 해설한 일귀(一歸) 스님의 말씀 한 귀를 전하는 것만으로도 이 책의 소가로 충분할 것 같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경생을 교화하신 공덕의 뜻이 '우라'에게 수정을 통해 사와와 이맛에 회합하는 상을 살리 하신 것이라면 능엄경은 그러한 회합의 상을 주실하게 해 주는 까닭에 특히 선종에서 중시했으며, 불제자라면 누구나 소중히 생각하는 경전이다."

본문 만큼 되는 꼼꼼하고도 자세한 주석(註)이 책의 격을 한층 더 높여 준다.

여현 무비 김수  
일귀 역주  
46신 320쪽  
값 25,000원  
불광출판사

### 절따라 전설따라

아무런 내력도 간직하지 못한 암자나 거둬, 우물터 따위는 생각만으로도 무미건조하고 싱겁다고 말하는 저자가 사찰연기가 화미해져가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펴낸 책이다.

불교사, 유교사, 삼국사, 오사, 동화사 등 흥미로운 얘깃거리가 많은 36개 사찰의 연기를 쉽게 읽히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완결적이다가 나만의 상상과 해석을 덧붙였다. 저자는 학문과는 별도로 이런 작업도 사찰연기의 대중화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펴냈다고 한다.

김종호 지음  
46신 306쪽  
값 7,000원  
대원출판사

### 길 끝나는 곳에 암자가 있다

삼의 질서가 흐트러지고 힘들고 지칠 때 고향처럼 느껴지는 암자가 있다면 한번쯤 자신을 추스리고 참된 나를 만나는 반행(半行)의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암자를 찾아다니는 3년 여의 저자가 그간의 암자 순례의 기록을 한 권의 책으로 묶었다.

이 책에는 암자 순례기 뿐만 아니라 저자가 오래 전에 발표했던 명상 산문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암자 트랙에서 읽을 만한 마음 이야기' 같이 서라고 저자는 말한다.

김진우 지음  
46신 306쪽  
값 8,000원  
예문출판사

### 스님은 황금을 메고 어디로 갔을까?

동화 형식을 빌려 불교 예설과 상식을 자상하게 설명한 책이다. 다른 종교에 비해 조금은 까다롭고 복잡해 보이는 불교 예설을 어린이들에게 가르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 책은 재미난 이야기를 통하여 불교 예설과 기본 교리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에게도 자연스럽게 다가간다.

책 코트머리에 50가지의 문답으로 정리한 불교 상식은 불교에 갖 입문한 어린이에게도 도움을 줄 것이다.

김영민 글·최민수 그림  
46신 320쪽  
값 6,000원  
다림

### — 불문의 성자, 폐타와 함께 한 건 거지 성자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황석영의 후천의 글처럼 진정한 무소유의 삶을 통해 가장 중요한 상을 살고 있는, 거지 성자 폐타 노이아르의 삶과 가르침을 담고 있는 책이다.

저자가 활동했던 독일 유태 시골 만나 정신적 삶의 위안이 되었던 폐타 노이아르의 가르침은 현대 서구 문명에 대한 반성을 통해 우리 시대의 문명을 격정하는 모든 이들에게 반성의 거울이 될 것이다.

전태성 지음  
46신 320쪽  
값 7,000원  
신계

### 무학대사 연구

무학대사는 아시아 문화 속에서 일반인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지만 정작 그의 생애나 사상 등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이 책은 실화와 전설에 묻혀버린 무학대사의 생애와 사상을 추적하고, 이상계를 통해 이루고자 했던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 등을 자세히 다뤘다.

또한 여말선초의 대각변기에 불교계의 효용을 주도한 것이 태고 부주의 법종이 아니라 나중에 해군에서 무학대사로 이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어 여말선초의 불교계 연구에 새로운 과제를 던지고 있다.

황인규 지음  
46신 306쪽  
값 13,000원  
영인

### 『스태디센터 찾아가기』

## 선의 황금시대

오경용 지음 / 류시화 옮김 / 46신 416쪽 / 값 10,000원 / 경서원

선(禪)이라 하면 이미 선이 아니라 했다. 하지만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나면 후회스럽기 그지없으면서도 또 말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또 이렇게 말하기를 붙들고 늘어져 본다. 영어나, 말문이 턱 막힌 한 순간에, 그동안 주위담은 온갖 말들이 와 ~ 하고 빠져나갈라 싶어, 문득 말의 끝자락에서 만난 말없음의 말을 만날라 싶어.

한 권의 책으로 어찌 선의 오의(奧義)를 맛볼 수 있을까만, 그래도 선문(禪門)을 가리키는 손가락 하나 끊으리만 이 책 『선의 황금시대』를 들고 싶다. 제대로 된 손가락이기 때문이다. 감히 제대로라는 수식어를 앞세운 까닭은, 선을 대하는 지은이의 태도 때문이다. 도통한 듯한 말투는 찾지 않는다. 이는 만큼 말하고 본 만큼 드러낸다. 그래서일까? 이 책을 읽는 중언은 머리를 굴리지 않고도 '아, 맞아, 이게 그거였어.' 하는 말을 계속 되뇌이게 된다.

**선사들의 이야기가 비록 문자로 전해온 것이긴 해도 그들의 치열한 삶이 피워올린 향기 같은 삶의 진실을, 마치 꿀벌이 꽃을 다치지 않고 꿀을 따 모으듯 뛰어난 이야기인 것이다.**

사실이 책에 대한 설명은 군더더기까지 많다. 워낙 유명한(?) 까닭이다. 그러나 이 시대같은 밝은 글이 누군가를 이 책과 닿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서 몇 마디 보탠다.

이 책은 원저의 제목 그대로, 선의 황금시대(The golden Age of Zen)를 살다간 중국 당나라 때(618-906)의 위대한 선사들의 이야기이다. 이야기이되, 보통 이야기와 다르다. 비록 문자로 전해온 것이긴 해도 그들의 치열한 삶이 피워올린 향기 같은 삶의 진실을, 마치 꿀벌이 꽃을 다치지 않고 꿀을 따 모으듯 뛰어난 이야기인 것이다.

또한 이 책은 스스로 선의 달인인 양 하는 사람들의 일탈같은 황금수성과는 거리가 멀어졌다. 유려하고도 재미난 문장으로 감싼 직관과 통찰은 온전히 없는 것이 아니다. 해능의 머무를 없이 쓰는 마음과 황백의 '동동이집', 임제의 '고함소리' 그리고 조주의 '차 한잔'이 지금 이 순간의 일로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이다.

책의 끝부분에 붙은, 당대 이후의 선 문헌에서 가려 뽑아 엮은 글들도 두드러고 새겨볼라하고, 이 책에 바친 토마스 머튼 신부의 글도 선의 불꽃을 다시 피워올리는 소중한 부재이다.

끝으로 사족 하나 더.

나는 이 책을 읽을 때마다 두 가지 절에서 배가 아프다. 그 하나는, 영어권에서 읽힌 책이 우리에게로 역수입되었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류시화 씨의 번역이 참으로 우리말 답다는 점이다. (배 아프긴 하지만) 고맙고도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윤재학 / 도서출판 여시아문 편집장 yunjh@buddhapia.co.kr

### 불교 출판계 소식

### 전국 불교 도서관 뒷얘기

불교계 출판사들은 불자의 중요성을 불자들에게 널리 인식시키고 불교 출판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행사라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도서 전시회이다.

지난 6월12일부터 19일까지 불교출판협회의가 조계종 총무원 1층에서 개최한 전국 불교 도서관도 그 중에 하나. 특히 이 도서 전시회는 불교출판협회가 사찰에 도서관을 만들자는 주제를 내세워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행사 이후 여기저기서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높다.

도서관에 참가했던 한 불자는 전국 도서관을 바자회라고까지 혹평했다. 대장경판 등 불교출판의 뿌리나 참가 출판사들의 과거와 현재를 보여주는 기회도 없었고 그나마 전시된 도서들이 빈약했다. 이는 전시회 개최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고 그는 말한다. 그리고 전시회 시장의 분위기와 각 출판사들의 부스 등의 시설적인 면도 바자회와 연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불교출판협회가 사찰에 도서관을 만들자는 주제를 내세워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행사 이후 여기저기서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전시회는 홍보와 출판사의 참여, 전시회장 설치, 독자 참여 유도 등 준비부터 미흡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다들 좋은 부분을 보완해 내년에 더 좋은 전시회를 개최하자는 각오를 세우고 있다."

교계는 말만 들어도 통찰하고 주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일들이 많다. 포교, 전법, 인재 양성 등. 하지만 이런 용어들에 허울 좋은 장식처럼 보일 때가 종종 있다. 경제적 불행 속에서 어떻게 마련된 전국 도서 전시회의 본래의 취지가 더 이상 퇴색되지 않길 바란다.

한편 전시회는 홍보와 출판사의 참여, 전시회장 설치, 독자 참여 유도 등 준비부터 미흡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다들 좋은 부분을 보완해 내년에 더 좋은 전시회를 개최하자는 각오를 세우고 있다."

교계는 말만 들어도 통찰하고 주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일들이 많다. 포교, 전법, 인재 양성 등. 하지만 이런 용어들에 허울 좋은 장식처럼 보일 때가 종종 있다. 경제적 불행 속에서 어떻게 마련된 전국 도서 전시회의 본래의 취지가 더 이상 퇴색되지 않길 바란다.

한편 전시회는 홍보와 출판사의 참여, 전시회장 설치, 독자 참여 유도 등 준비부터 미흡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다들 좋은 부분을 보완해 내년에 더 좋은 전시회를 개최하자는 각오를 세우고 있다."

교계는 말만 들어도 통찰하고 주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일들이 많다. 포교, 전법, 인재 양성 등. 하지만 이런 용어들에 허울 좋은 장식처럼 보일 때가 종종 있다. 경제적 불행 속에서 어떻게 마련된 전국 도서 전시회의 본래의 취지가 더 이상 퇴색되지 않길 바란다.

한편 전시회는 홍보와 출판사의 참여, 전시회장 설치, 독자 참여 유도 등 준비부터 미흡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다들 좋은 부분을 보완해 내년에 더 좋은 전시회를 개최하자는 각오를 세우고 있다."

교계는 말만 들어도 통찰하고 주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일들이 많다. 포교, 전법, 인재 양성 등. 하지만 이런 용어들에 허울 좋은 장식처럼 보일 때가 종종 있다. 경제적 불행 속에서 어떻게 마련된 전국 도서 전시회의 본래의 취지가 더 이상 퇴색되지 않길 바란다.

한편 전시회는 홍보와 출판사의 참여, 전시회장 설치, 독자 참여 유도 등 준비부터 미흡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다들 좋은 부분을 보완해 내년에 더 좋은 전시회를 개최하자는 각오를 세우고 있다."

교계는 말만 들어도 통찰하고 주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일들이 많다. 포교, 전법, 인재 양성 등. 하지만 이런 용어들에 허울 좋은 장식처럼 보일 때가 종종 있다. 경제적 불행 속에서 어떻게 마련된 전국 도서 전시회의 본래의 취지가 더 이상 퇴색되지 않길 바란다.

한편 전시회는 홍보와 출판사의 참여, 전시회장 설치, 독자 참여 유도 등 준비부터 미흡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다들 좋은 부분을 보완해 내년에 더 좋은 전시회를 개최하자는 각오를 세우고 있다."

교계는 말만 들어도 통찰하고 주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일들이 많다. 포교, 전법, 인재 양성 등. 하지만 이런 용어들에 허울 좋은 장식처럼 보일 때가 종종 있다. 경제적 불행 속에서 어떻게 마련된 전국 도서 전시회의 본래의 취지가 더 이상 퇴색되지 않길 바란다.

한편 전시회는 홍보와 출판사의 참여, 전시회장 설치, 독자 참여 유도 등 준비부터 미흡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다들 좋은 부분을 보완해 내년에 더 좋은 전시회를 개최하자는 각오를 세우고 있다."

교계는 말만 들어도 통찰하고 주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일들이 많다. 포교, 전법, 인재 양성 등. 하지만 이런 용어들에 허울 좋은 장식처럼 보일 때가 종종 있다. 경제적 불행 속에서 어떻게 마련된 전국 도서 전시회의 본래의 취지가 더 이상 퇴색되지 않길 바란다.

한편 전시회는 홍보와 출판사의 참여, 전시회장 설치, 독자 참여 유도 등 준비부터 미흡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다들 좋은 부분을 보완해 내년에 더 좋은 전시회를 개최하자는 각오를 세우고 있다."

교계는 말만 들어도 통찰하고 주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일들이 많다. 포교, 전법, 인재 양성 등. 하지만 이런 용어들에 허울 좋은 장식처럼 보일 때가 종종 있다. 경제적 불행 속에서 어떻게 마련된 전국 도서 전시회의 본래의 취지가 더 이상 퇴색되지 않길 바란다.

한편 전시회는 홍보와 출판사의 참여, 전시회장 설치, 독자 참여 유도 등 준비부터 미흡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다들 좋은 부분을 보완해 내년에 더 좋은 전시회를 개최하자는 각오를 세우고 있다."

교계는 말만 들어도 통찰하고 주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일들이 많다. 포교, 전법, 인재 양성 등. 하지만 이런 용어들에 허울 좋은 장식처럼 보일 때가 종종 있다. 경제적 불행 속에서 어떻게 마련된 전국 도서 전시회의 본래의 취지가 더 이상 퇴색되지 않길 바란다.



### 이 책을 말한다

### 『精選 아함경』

### 부처님 가르침의 원형을 담고 있는 경전 『아함경』.

김종근 지음

불자들이 겪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경전을 공부하는 일이다. 불교의 교리 체계 자체가 심오하고 방대해 이해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불자들이 신앙은 돈독하나 경전 이해의 수준은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물론 불교가 경전에 대한 지식의 많고 적음에 의해 완성되는 종교는 아니다. 오히려 백 가지 이론보다 한 가지라도 실천행위를 요하는 실천 종교다. 방대한 팔만대장경을 암송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경전의 내용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의 굶핍 없는 신심과 진지한 실천에는 미치지 못한다.

또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실천이 중요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잘못 알려지니 잘못 하는 그릇된 행위는 아집과 독선에 빠지게 한다. 경전 공부에 이러한 잘못을 예방하고 종교적 행위의 목표와 동기를 부여해 준다.

"어떤 사람이 불이 활활 타오르는 난로를 보고도 그것이 뜨거운 것인 줄 모르고 손을 댔다면 화상을 입고 말 것이다." 부처님께서 경전 공부에 대한 중요성을 설한 예다. 부처님께서 강조한 것은 올바른 실천이란 올바른 지식과 이해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즉 교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을 때 바른 실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전 공부에 불자들에게 불교를 신봉하는 이유를 밝혀 준다. 왜 부처님을 믿고 가르침을 실천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가 명백해질 때 불행이라는 지리의 바다에 뜬 어항 줄 수 있다.

한편 불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불교가 어떤 종교인가 하는 것부터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처님의 체취를 느낄 수 있는 경전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바른 안목과 참된 믿음으로 흔들림 없는 불자의 자세를 구축하는 지름길일 것이다. 이에 적합한 경전으로 아함경이 있다. 아함경은 불법승 삼보에 대해 알게 해 주는 경전이다. 한 마디로 불교의 기본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함경은 사실 아함경이라는 이름으로 된 한 권의 경전이 아니다. 아함경은 이야기 기틀의 모음집처럼, 길어도 내용도 가지가지의 여러 경들을 함께 모아 놓은 것이다. 사실은 아함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야 마땅하다. 아함부는 수록된 경전의 성격이나 길이에 따라 네 가지로 나뉜다. 장아함·중아함·중일아함·잡아함이 바로 그것. 이 4아함에 실린 경전의 숫자는 약 2천 가지가 넘는다.

시공사에서 펴낸 『정선 아함경』은 이 4아함 2천여 가지의 경들을 가운데 불자들이 삶의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경들을 부처님의 생애를 따라 새롭게 번역하고 해설한 책이다.

처음부터 읽어보면 부처님께서 탄생에서부터 깨달음을 얻고 다섯 비구를 비롯, 여러 대중들과 수행자들에게 설법하면서 일어나는 사건들, 그리고 열반에 드실 때까지의 부처님 일생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물론 그 속에서 삼보에 대한 가르침을 비롯 사성제와 연기법 등의 기본적인 가르침도 얻을 수 있다.

아함경의 원문이 실려 있지 않아 역자의 시각으로만 읽어야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아함의 방대한 분량 때문에 가까이 대하지 못했던 불자들의 경우 불교 전체의 윤곽을 정리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한편 전시회는 홍보와 출판사의 참여, 전시회장 설치, 독자 참여 유도 등 준비부터 미흡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다들 좋은 부분을 보완해 내년에 더 좋은 전시회를 개최하자는 각오를 세우고 있다."

교계는 말만 들어도 통찰하고 주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일들이 많다. 포교, 전법, 인재 양성 등. 하지만 이런 용어들에 허울 좋은 장식처럼 보일 때가 종종 있다. 경제적 불행 속에서 어떻게 마련된 전국 도서 전시회의 본래의 취지가 더 이상 퇴색되지 않길 바란다.

한편 전시회는 홍보와 출판사의 참여, 전시회장 설치, 독자 참여 유도 등 준비부터 미흡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다들 좋은 부분을 보완해 내년에 더 좋은 전시회를 개최하자는 각오를 세우고 있다."

교계는 말만 들어도 통찰하고 주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일들이 많다. 포교, 전법, 인재 양성 등. 하지만 이런 용어들에 허울 좋은 장식처럼 보일 때가 종종 있다. 경제적 불행 속에서 어떻게 마련된 전국 도서 전시회의 본래의 취지가 더 이상 퇴색되지 않길 바란다.

한편 전시회는 홍보와 출판사의 참여, 전시회장 설치, 독자 참여 유도 등 준비부터 미흡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다들 좋은 부분을 보완해 내년에 더 좋은 전시회를 개최하자는 각오를 세우고 있다."

교계는 말만 들어도 통찰하고 주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일들이 많다. 포교, 전법, 인재 양성 등. 하지만 이런 용어들에 허울 좋은 장식처럼 보일 때가 종종 있다. 경제적 불행 속에서 어떻게 마련된 전국 도서 전시회의 본래의 취지가 더 이상 퇴색되지 않길 바란다.

한편 전시회는 홍보와 출판사의 참여, 전시회장 설치, 독자 참여 유도 등 준비부터 미흡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다들 좋은 부분을 보완해 내년에 더 좋은 전시회를 개최하자는 각오를 세우고 있다."

교계는 말만 들어도 통찰하고 주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일들이 많다. 포교, 전법, 인재 양성 등. 하지만 이런 용어들에 허울 좋은 장식처럼 보일 때가 종종 있다. 경제적 불행 속에서 어떻게 마련된 전국 도서 전시회의 본래의 취지가 더 이상 퇴색되지 않길 바란다.

한편 전시회는 홍보와 출판사의 참여, 전시회장 설치, 독자 참여 유도 등 준비부터 미흡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다들 좋은 부분을 보완해 내년에 더 좋은 전시회를 개최하자는 각오를 세우고 있다."

교계는 말만 들어도 통찰하고 주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일들이 많다. 포교, 전법, 인재 양성 등. 하지만 이런 용어들에 허울 좋은 장식처럼 보일 때가 종종 있다. 경제적 불행 속에서 어떻게 마련된 전국 도서 전시회의 본래의 취지가 더 이상 퇴색되지 않길 바란다.

한편 전시회는 홍보와 출판사의 참여, 전시회장 설치, 독자 참여 유도 등 준비부터 미흡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다들 좋은 부분을 보완해 내년에 더 좋은 전시회를 개최하자는 각오를 세우고 있다."

교계는 말만 들어도 통찰하고 주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일들이 많다. 포교, 전법, 인재 양성 등. 하지만 이런 용어들에 허울 좋은 장식처럼 보일 때가 종종 있다. 경제적 불행 속에서 어떻게 마련된 전국 도서 전시회의 본래의 취지가 더 이상 퇴색되지 않길 바란다.

한편 전시회는 홍보와 출판사의 참여, 전시회장 설치, 독자 참여 유도 등 준비부터 미흡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다들 좋은 부분을 보완해 내년에 더 좋은 전시회를 개최하자는 각오를 세우고 있다."

교계는 말만 들어도 통찰하고 주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일들이 많다. 포교, 전법, 인재 양성 등. 하지만 이런 용어들에 허울 좋은 장식처럼 보일 때가 종종 있다. 경제적 불행 속에서 어떻게 마련된 전국 도서 전시회의 본래의 취지가 더 이상 퇴색되지 않길 바란다.

한편 전시회는 홍보와 출판사의 참여, 전시회장 설치, 독자 참여 유도 등 준비부터 미흡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다들 좋은 부분을 보완해 내년에 더 좋은 전시회를 개최하자는 각오를 세우고 있다."

교계는 말만 들어도 통찰하고 주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일들이 많다. 포교, 전법, 인재 양성 등. 하지만 이런 용어들에 허울 좋은 장식처럼 보일 때가 종종 있다. 경제적 불행 속에서 어떻게 마련된 전국 도서 전시회의 본래의 취지가 더 이상 퇴색되지 않길 바란다.

한편 전시회는 홍보와 출판사의 참여, 전시회장 설치, 독자 참여 유도 등 준비부터 미흡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다들 좋은 부분을 보완해 내년에 더 좋은 전시회를 개최하자는 각오를 세우고 있다."

교계는 말만 들어도 통찰하고 주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일들이 많다. 포교, 전법, 인재 양성 등. 하지만 이런 용어들에 허울 좋은 장식처럼 보일 때가 종종 있다. 경제적 불행 속에서 어떻게 마련된 전국 도서 전시회의 본래의 취지가 더 이상 퇴색되지 않길 바란다.

『정선 아함경』은 4아함 2천여 가지의 경들을 가운데 불자들이 삶의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경들을 부처님의 생애를 따라 새롭게 번역하고 해설한 책이다.

처음부터 읽어보면 부처님께서 탄생에서부터 깨달음을 얻고 다섯 비구를 비롯, 여러 대중들과 수행자들에게 설법하면서 일어나는 사건들, 그리고 열반에 드실 때까지의 부처님 일생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한편 전시회는 홍보와 출판사의 참여, 전시회장 설치, 독자 참여 유도 등 준비부터 미흡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다들 좋은 부분을 보완해 내년에 더 좋은 전시회를 개최하자는 각오를 세우고 있다."

교계는 말만 들어도 통찰하고 주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일들이 많다. 포교, 전법, 인재 양성 등. 하지만 이런 용어들에 허울 좋은 장식처럼 보일 때가 종종 있다. 경제적 불행 속에서 어떻게 마련된 전국 도서 전시회의 본래의 취지가 더 이상 퇴색되지 않길 바란다.

한편 전시회는 홍보와 출판사의 참여, 전시회장 설치, 독자 참여 유도 등 준비부터 미흡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다들 좋은 부분을 보완해 내년에 더 좋은 전시회를 개최하자는 각오를 세우고 있다."

교계는 말만 들어도 통찰하고 주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일들이 많다. 포교, 전법, 인재 양성 등. 하지만 이런 용어들에 허울 좋은 장식처럼 보일 때가 종종 있다. 경제적 불행 속에서 어떻게 마련된 전국 도서 전시회의 본래의 취지가 더 이상 퇴색되지 않길 바란다.

한편 전시회는 홍보와 출판사의 참여, 전시회장 설치, 독자 참여 유도 등 준비부터 미흡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다들 좋은 부분을 보완해 내년에 더 좋은 전시회를 개최하자는 각오를 세우고 있다."

교계는 말만 들어도 통찰하고 주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일들이 많다. 포교, 전법, 인재 양성 등. 하지만 이런 용어들에 허울 좋은 장식처럼 보일 때가 종종 있다. 경제적 불행 속에서 어떻게 마련된 전국 도서 전시회의 본래의 취지가 더 이상 퇴색되지 않길 바란다.

한편 전시회는 홍보와 출판사의 참여, 전시회장 설치, 독자 참여 유도 등 준비부터 미흡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다들 좋은 부분을 보완해 내년에 더 좋은 전시회를 개최하자는 각오를 세우고 있다."

교계는 말만 들어도 통찰하고 주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일들이 많다. 포교, 전법, 인재 양성 등. 하지만 이런 용어들에 허울 좋은 장식처럼 보일 때가 종종 있다. 경제적 불행 속에서 어떻게 마련된 전국 도서 전시회의 본래의 취지가 더 이상 퇴색되지 않길 바란다.

한편 전시회는 홍보와 출판사의 참여, 전시회장 설치, 독자 참여 유도 등 준비부터 미흡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다들 좋은 부분을 보완해 내년에 더 좋은 전시회를 개최하자는 각오를 세우고 있다."

교계는 말만 들어도 통찰하고 주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일들이 많다. 포교, 전법, 인재 양성 등. 하지만 이런 용어들에 허울 좋은 장식처럼 보일 때가 종종 있다. 경제적 불행 속에서 어떻게 마련된 전국 도서 전시회의 본래의 취지가 더 이상 퇴색되지 않길 바란다.

한편 전시회는 홍보와 출판사의 참여, 전시회장 설치, 독자 참여 유도 등 준비부터 미흡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다들 좋은 부분을 보완해 내년에 더 좋은 전시회를 개최하자는 각오를 세우고 있다."

교계는 말만 들어도 통찰하고 주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일들이 많다. 포교, 전법, 인재 양성 등. 하지만 이런 용어들에 허울 좋은 장식처럼 보일 때가 종종 있다. 경제적 불행 속에서 어떻게 마련된 전국 도서 전시회의 본래의 취지가 더 이상 퇴색되지 않길 바란다.

한편 전시회는 홍보와 출판사의 참여, 전시회장 설치, 독자 참여 유도 등 준비부터 미흡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다들 좋은 부분을 보완해 내년에 더 좋은 전시회를 개최하자는 각오를 세우고 있다."

교계는 말만 들어도 통찰하고 주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일들이 많다. 포교, 전법, 인재 양성 등. 하지만 이런 용어들에 허울 좋은 장식처럼 보일 때가 종종 있다. 경제적 불행 속에서 어떻게 마련된 전국 도서 전시회의 본래의 취지가 더 이상 퇴색되지 않길 바란다.

한편 전시회는 홍보와 출판사의 참여, 전시회장 설치, 독자 참여 유도 등 준비부터 미흡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다들 좋은 부분을 보완해 내년에 더 좋은 전시회를 개최하자는 각오를 세우고 있다."

교계는 말만 들어도 통찰하고 주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일들이 많다. 포교, 전법, 인재 양성 등. 하지만 이런 용어들에 허울 좋은 장식처럼 보일 때가 종종 있다. 경제적 불행 속에서 어떻게 마련된 전국 도서 전시회의 본래의 취지가 더 이상 퇴색되지 않길 바란다.

한편 전시회는 홍보와 출판사의 참여, 전시회장 설치, 독자 참여 유도 등 준비부터 미흡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다들 좋은 부분을 보완해 내년에 더 좋은 전시회를 개최하자는 각오를 세우고 있다."

교계는 말만 들어도 통찰하고 주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일들이 많다. 포교, 전법, 인재 양성 등. 하지만 이런 용어들에 허울 좋은 장식처럼 보일 때가 종종 있다. 경제적 불행 속에서 어떻게 마련된 전국 도서 전시회의 본래의 취지가 더 이상 퇴색되지 않길 바란다.

한편 전시회는 홍보와 출판사의 참여, 전시회장 설치, 독자 참여 유도 등 준비부터 미흡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다들 좋은 부분을 보완해 내년에 더 좋은 전시회를 개최하자는 각오를 세우고 있다."

교계는 말만 들어도 통찰하고 주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일들이 많다. 포교, 전법, 인재 양성 등. 하지만 이런 용어들에 허울 좋은 장식처럼 보일 때가 종종 있다. 경제적 불행 속에서 어떻게 마련된 전국 도서 전시회의 본래의 취지가 더 이상 퇴색되지 않길 바란다.

### 여시아문 풍신

현대불교신문의 불서 정보란 '여시아문'에 신간 소개를 원하는 출판사에서는 보도자료와 함께 신간을 보내 주실시요. 좋은 책이 독자 독자 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소: 서울시 중구 경자동 110-33  
전화: (02)737-0265, 732-1521  
팩스: (02)737-0996

— 여시아문 편집부 —